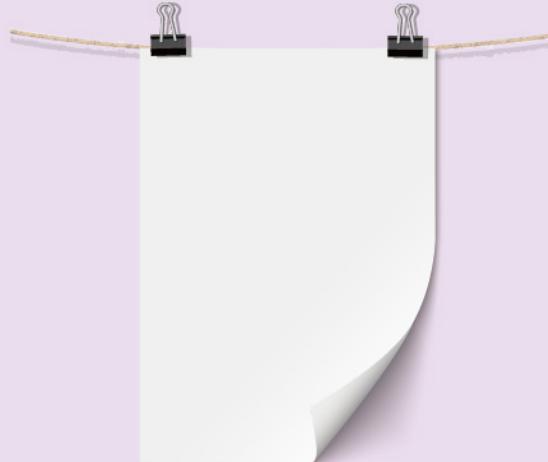




## 청춘과 뿌리는 종이 한 장 사이



2012년 떠났던 천안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발령 받은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다닐 만큼 가까운 작은 학교였다. 2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는데 5월이 되어 봄 소풍을 가게 되었다.

일 많은 후배들을 돋는다고 학년 총무를 맡았던 나는 후배인 학년부장에게 학년 선생님들 먹을 점심 김밥을 사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같이 가는 학년부장에게 물어 보더니 학부모들이 준비해 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장학습으로 출장 달면 출장비로 점심 값까지 나오는데 왜 학부모들에게 신세를 지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년부장 말이 현장학습 가는 업체에서 주는 점심을 먹겠다고 했단다.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그게 바로 부정부패 아닌가? 업체에다 아이들 보내 돈 벌게 해 주고 점심 얻어먹는다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더니 가운데서 입장이 곤란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내 개인 돈으로 커피랑 음료수를 사서 같이 가는 선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현장학습을 갔는데 학년부장이 배낭을 엄청 큰 것을 메고 있기에 이게 웬 것인가? 했더니 화가 나서 말하길 ‘선생님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친정 엄마 오라고 해서 도시락 싸오느라 가방이 커졌잖아요.’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결국 모두

각자가 싸 온 도시락을 먹게 되었지만 부임해 오자마자 한바탕 난리를 부린 나는 이 학교에서 이때부터 미운 오리 할머니가 되었다.

더위가 한창 농익기 시작하던 2013년 6월의 어느 날 운동장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과 놀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학년부장이나를 급히 불렀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였더니 교육 복지실 개관식을 하니어서 오라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수업하다 말고 갈 수 없어 수업을 마친 후에 현관으로 갔다.

현관에 돼지머리까지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지 고삿상이 차려져 있고 전 직원이 모여 있었다. 6학년 부장과 교사들이 돼지 입에 돈 봉투를 물리고 절을 하고 있었다. 이미 내가 속한 4학년은 끝난 상태라서 어떻게 하는지 뒤에 서서 살펴보고 있었다. 학년별로 다 돌아가고 나더니 행정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돌아가며 고삿상에 절을 하고 돈 봉투를 돼지 입에 끼워 넣는 것이었다. 고사가 끝나자 A부장이 친목회장인 B선생님을 불러 돼지 입에서 꺼낸 돈 봉투를 모아주면서 친목회비로 쓰라고 주는 것이었다. 황당한 모습이었다.

당시 도덕과 체육교담이었던 나는 체육교담실로 돌아와 B친목회장에게 아까 A부장이 준 돈은 학부모들도 학교 발전을 위해 낸 것이니 친목회에서 받아 사용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메신저로 알려주고 퇴근을 하였다.

마침 전 직원 회의가 있는 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조퇴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 B 친목회장이 안건으로 올려서 친목회비로 사용할 지 아니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어 사용할지 여부를 가지고 회의를 한 모양이었다. 지인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45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으면 업무만 늘어나서 담당자가 싫어하니 난감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표결에 부쳤는데 많은 표 차이로 친목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렴과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 이런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음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서 다시 부장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왜 그 돈을 우리가 친목회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인가는 주장부터 왜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가지 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인가는 둘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식의 온갖 원망이 내게 쏟아졌다. 학교장 맘대로 교육복지 예산으로 돼지머리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고사에 동참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돼지 입에 돈 봉투 물린 학부모들 앞에서 친목회에서 사용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친목회에서 사용하자는 쪽에 손드는 많은 선생들의 모습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다. 부정한 돈으로 운영하는 친목회를 탈퇴하겠으니 친목회장인 B 선생님에게 ‘다음 달부터 내 봉급에서 친목회비 떼지 말라’고 선언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에 동조할 수 없어요.’하고 부장회의 자리를 나와 버렸다.

지난 2009년부터 학교현장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학교장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와 신고를 해 왔던 나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어린 후배 교사들마저 부패의 물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까지 할 수는 없어 내내 고민하고 있었다.

다행히 내 말에서 무게가 느껴졌는지 다시 친목회장인 B교사가 나를 찾아와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 말이 맞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기에 아이들을 위해 책을 구입해 주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아~ 청렴의 길은 참으로 멀다. 이후 또 다른 일이 불거져 나왔다. 1학기를 마칠 무렵 학교장은 전 직원을 대동하고 교육과정연찬회를 대천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예산이 없어서 친목회비에서 식사비를 내고 교통비는 학교운영위원장이 낸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연찬회라면 친목행사가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이니 마땅히 학교예산에서 지출되어져야 할 일이었다. 또한 친목회 행사라면 모든 경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되어져야 할 일이었다. 교육과정의 일환이든 친목회 행사는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버스비를 받으면 안 되는 일었음에도 학교장은 그렇게 일을 진행 시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나는 당연히 나는 그런 부패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다.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몇 번을 체육교담을 찾아와서 한번만 눈감아주고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친목회에서 놀러간다고 마냥 설레어 있었다. 떠나는 날 교무부장과 교감에게

‘잘 다녀와라.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제기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였다. 그냥 놓아두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다. 얼마 전에도 학교운영위원장이 내게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면 운영위원장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 놓은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학교 내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교육과정 연찬회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알면 나를 원망할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나 업무포털 메일을 통해 충남도교육청 감사실 전 직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부패인가 질문하는 형식의 메일을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학교로 연락이 온 모양이었다. 교감선생님이 내게 다시 찾아와 감사실에서 연락 온 일이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내게 말하기에 그건 내가 감사실에 메일을 보내서 온 연락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칫하면 죄 없는 후배들이 다칠 상황이라기에 다시 감사실에 메일을 보냈다. 교사들이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고…….

결국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불하였던 버스비는 친목회비에서 추후 지불하도록 조치되었고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들은 부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해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청렴교육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하는 학교 현장! 늘 귀찮다는 듯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청렴교육! 누군가의 문제제기가 있어도 별 것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것이 공직자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줄 아는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청렴  
韓國  
세상**